

대면이/바디현직 합격수기

취준을 한창 했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취준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거 중 하나였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도 많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판단과 재량 하에 이행해도 되는 부분도 많아서 누군가에게 방안을 의지하기보단 개인의 판단 하에 소신 있게 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어떤 사항이 과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궁금증은 많은 분들께서 해결하고 싶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나서, 너무 의존적으로 취준을 진행하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답을 참고하셔서 조금은 주체적인 지원자가 되셔서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취준때 궁금했던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가고, 제가 저의 성향에 맞는 여러 회사들과 직무만을 준비하고 합격해보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린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바랍니다. (예를들어, 저는 생산쪽 직무는 관심을 거의 안가지고 R&D쪽만 준비했기 때문에 채용절차나 TO, 핵심적인 역량, 기준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채용 절차상의 디테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1.채용 시스템 관련 질문

Q:현대차 채용담당자나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Q:발표 언제날까요? ㅠㅠ (2021년 5월 기준)
2021년 안에는 납니다. 예전에는 한 전형당 25일~40일까지 걸렸었는데 요즘은 좀더 짧아지는 추세로 보이네요.

Q:TO 관련 질문
아무도 모릅니다

Q:증명사진에는 꼭 6개월 이내꺼 써야하나요?
오래 지난거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에 말했듯, 경중을 판단했을 때 절대적 사항이라면 지킬 것이고, 아니라면 유연하게 재량껏 대처하시면 됩니다. 증명사진과같은 경우는 후자입니다.

Q:중복 지원이 가능한 '계열사'는?
기아자동차 뿐입니다.

Q:현대자동차'그룹' 안의 '계열사'들은 중복지원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현대차, 모비스, 기아차, 오톨론 케피코 트랜시스 등등.. 모두 1회씩은 지원 가능하나, 기아차만 2회 이상 가능한 것입니다.

Q:현대자동차'그룹' 안 '계열사' 간의 중복지원으로 인해서 채용 과정이 겹치면... 필터링 되지 않을까요? 너무 불안해요.
필터링 안됩니다. 동시 합격한 산증인들 많습니다. 이 글 읽으시고 단톡방에, 현대차 그룹 계열사 동시합격한 사람들 찾으시면 여러 사람 나올겁니다.

Q:인적성검사는 폐지되었나요?
현재 현대차 그룹에서 시행되고 있는 Hmat는, 삼성 gsat과 같은 '머리써서 푸는 문제'인 적성검사 전형은 빠져있고 인성검사만 포함되어있습니다.

Q:필터링이 뭔가요?

과거에 불합격 했던 사람을 다음 채용 절차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불합격 시키는 일종의 블랙리스트 개념의 인사관리입니다.

Q:그럼 필터링 하나요?

적어도 현대차는 필터링 없습니다. 불합격하고 다음에 합격한 산증인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서류 복불도 합격했습니다. 다만, 현대트랜시스도 지난 채용 절차 중, 현대트랜시스 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한 유튜브의 운영자가 직접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은 다음 채용절차에서 필터링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2.합격 불합격 기준 관련 질문

Q:자소서 맞춤법 틀렸는데 어떡하죠?

맞춤법이나 오타는 합불이랑 연관 없습니다.

Q:한국사 자격증 있으면 어떻게 해석되나요?

아무 해석도 안 합니다.

Q:식사, 중고신입, 고학벌, 고학점은 전형에서 유리하겠죠?

의미없는 질문입니다. ‘우수한 스펙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우수한 게 아니라, ‘갖고있는 스펙이나 경험이 뭐가 되었든 재료 삼아 최적의 상태로 요리하는 사람’이 우수하다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채용 절차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갖고있는 스펙이나 경험이 될만한 것들 조차 없이 나무늘보처럼 누워서 지냈다면 조금은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Q:영어성적 중요한가요?

안 중요합니다. 토스 5여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고고익선 아닌가요?

현직에 계신 분들 영어성적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보지도 않던데요. 레벨 7 이상으로 높으면 서류전형에선 요~~~~만큼 좋겠죠. 근데 그거 성적 올릴시간에 다른 지원자는 면접 필살기 만들고 있을 겁니다.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Q:토익 필요한가요?

사기업은 스피킹만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토익(990점 만점짜리 시험)점수 더 있다고 플러스 없습니다.

Q:요즘 최종합격자 평균 나이는 어떨까요?

남자 기준, 27.5~27.8? 정도입니다. 27살 비중이 가장 높으며, 28, 29, 30 등 다양합니다.

Q:AI게임 못하면 망하나요?

AI게임 성적으로 합불 여부 안 가립니다. 참여 태도를 보는겁니다. 못했어도 집중해서 했으면 플러스 요인입니다. 집중하면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임이 있고, 집중해도 운이 중요한 게임이 있는데, 어쨌든 둘 다 최적의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분포하는 성적대가 있기 마련이니, 모든 게임을 다 너무 못해선 안 되겠죠. 하지만 일부로 망치지만 않는다면 모든 게임을 최저점을 맞진 않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Q:나이 많으면 안뽑나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적은 이유는, 나이가 많아 안 뽑아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지원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Q:직무경험 중요한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글썄요 막상 회사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경험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갖고있는 스펙이나 경험이 뭐가 되었든 재료 삼아 최적의 상태로 요리하는 사람’이 우수하다고 여겨집니다. 적어도 채용 절차에선 그렇습니다. (속닥속닥) 약을 잘 팔으라는 이야기입니다.

3.남양연구소 관련 질문

Q:남양 밥 맛있나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듯 합니다. 저와 대부분 제 주변 회사사람들은 맛있다고 합니다. ‘블라인드’에서는 맛없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구요.(남양 기준)

Q:진짜 칼퇴 하나요?

진짜 합니다. 4:57에 짐싸고 5:00에 텀니다. 물론 진급 할수록 책임질게 많아지고 야근은 하겠죠. 실제로 책임연구원분들은 야근 자주 하시구요. 그렇다고 밤늦게 하고 그런건아니고 정시퇴근이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남양 기준)

Q:아직 분위기나 문화가 그다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연구소 인력이 15000명입니다. 센터, 실, 팀, 파트가 수백개고 분위기가 저마다 너무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적 문화는 대부분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사원급의 정시퇴근을 보장해주자는 전반적인 분위기나, 잔심부름 등을 안시킨다던가 하는 존중의 분위기 등. (남양 기준)

4.면접 관련 질문

Q:면접 복장 어떻게 하시나요?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예의 갖춰 만나러 갈 때 뭐 입으십니까? 네 그겁니다. 그거 입으세요. 혹시 그게 정장이라면 ‘정장이 없다면’ 뭐 입을지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겁니다.

Q:현대차 R&D 1차면접 ppt 분량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기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전체 12장이었으며, 8장부터 25장까지 다양하게 봤습니다. 핵심은, ppt가 몇장이냐가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느냐’입니다. 붙는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구요. 때문에 제가 본 최종합격자들은 ppt 분량이 많지 않았습니.(9~13장 사이?) 간단간단 하더라구요, 근데 ppt가 많아도 뚜렷한 의중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한다면 괜찮겠쥬. 자기 판단입니다.

Q:1차, 2차면접 각각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던가요?

여러 면접이 있겠지만 현대차 R&D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면접은 ppt발표부터 모든 질의응답 다 해서 총 28분정도, 2차면접도 그 정도였습니다.

Q:소요시간이 합격, 불합격과 관련이 있나요?

없습니다. 현직에서 면접을 보신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Q:서류는 일단 붙었는데 학점 너무 낮아요.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죠?

당신이 학점이 낮아서 회사에 들이기 싫었다면 ‘서류전형에서 당신을 합격’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채용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으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학점이 왜

낮은지를 잘 인지하시고 그걸 설명할줄 알면 됩니다. 저는 공부대신 직무경험을 쌓았어요~~ 이렇게 뻔하게 말고 좀 진정성 있게.

Q:현대차 R&D 전공포지셔닝 맵에는 어떤 과목들을 넣어야 하나요? 학교마다 전공과목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상이한데, 혼란스럽습니다.

이 역시 뚜렷한 매뉴얼이 없는게 실정입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전공기초, 필수전공, 전공선택’을 포함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측에서 1학년때 배우는 기초과목 마저도 전공기초로 분류한다면 이를 ppt에 포함시키셔도 됩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 과목 코드를 정리하는 매뉴얼을 사측에서 아무도 알고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 화학 등같은 과목들은 전공기초라고 분류되어있어도 전공과목포지셔닝 맵에 안 넣어도 아무런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기과목들만 많아지면 조금 혼란스러울 여지는 있겠쥬. 그리고 현대차 R&D 1차 면접에서 전공과목 포지셔닝맵을 포함해 발표를 시키는 의중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기초과목은 더욱이 그 의중에서 벗어나는 거겠쥬. 결국은 본인 선택입니다.

Q:면접스터디 도움 많이 되나요?

네. 저는 도움 많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향차이입니다. 면접스터디를 함으로써 억지로라도 자기의 면접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사람들이 있고, 원래 발표에 능해서 면접스터디를 해도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일단 해보는 것’이 낫겠쥬. 안맞으면 그만두고, 맞으면 더 하면 되구요. 그리고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과 자신의 시너지가 잘 맞아야합니다. 양측 다 열심히하는 사람이여야하는게 기본이자 전부입니다. 그래야 서로 얻어가더라구요. 구하다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준비하게 될텐데, 알아서 간 보시고 도움 될만한 분들과 상부상조하면 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잘 추려서 좋은 분들과 했기 때문에 뭐 경쟁이랍시고 숨기고 간보고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Q:동아리, 연구, 활동 등의 증명 방법은 뭔가요?

사진, 캡처본, 팀목걸이, 서류, 스캔본, 회식사진 등등 어떤 거도 가리지않고 제출 가능합니다. 자신이 서류나 자소서 상에 언급한 활동이나 팀활동 등에 있어서 자신이 포함되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동아리원들과 자동차 대회를 나가서 회식때 술먹다 바닥에 한 토 사진이나, 동아리원과 프로젝트 중 싸워서 족탕날려서 나간 어금니 사진 이런거만 아니면 아니면... 정말 모든 증명이 전부 허용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포스터, 회의록, 카톡방 캡처본, 대회 단체사진, 팀목걸이, 주최측에서 발행한 팀원명단 등을 활용했습니다.

Q:ppt 발표에 애니메이션 넣어도 되나요?

저는 애니메이션 넣은 ppt 파일로 발표 했습니다. 1차면접 공지에는 pdf 파일로 하라고 했는데, 저는 ppt로도 아무 탈 없이 했습니다. 사측 공지의 경중을 가려보았을 때, 절대적이라 판단되면 pdf 파일로만 하시면 되고, 어느정도 허용 범위라 판단되시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안하면 인사팀 메일로 문의하면 되구요. 그렇게 까지 귀찮게 하고싶진 않으면 pdf로 하면 되구요.

Q:ppt 발표할 때 어디 쳐다보나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모니터 봤습니다. 카메라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니터 보고도 합격 불합격 많이 하고 카메라 보고도 합격 불합격 많이 합니다.

Q:자소서나 면접, ppt 등에 학교 언급 되나요?

자소서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소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때 학교 이름이 필요한 경우는 여태 한 번도 못봤습니다. 굳이 학교 이름을 언급시켜 읽는

사람이 혼란을 일으키는건 오히려 역효과라 사료됩니다. 면접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만 ppt에는 자신의 학교가 드러나게 되는 여러 표본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ppt 안에는 작고 큰 증명 자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개인 판단입니다.

Q:화상면접때 모니터나 면접관 섹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1차면접 같은 경우는, 두 화상카메라를 두 면접관이 따로 쓰셨습니다. 2차면접 같은 경우는 한 화상카메라에 세 면접관이 다 담기게 나오는 구도였습니다.

Q:1차면접 때 ppt를 마치고 나면 화면공유는 어떻게 처리하죠?

ppt 화면공유 같은 경우는 저는 1차면접에서 ppt를 마친 뒤에 화면공유나 ppt를 종료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으셔서 피피티 마지막장 마치고 전체화면 종료된 뒤 그대로 화면공유 한 채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갔었습니다.

Q:대본 보고 면접 봐도 되나요?

가능한데 면접관들 다 압니다. 그래도 상관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면접의 최고 핵심은 진정성이겠죠. 정말 붙고싶으시다면 진정성 있게 대본 보고 하거나, 진정성 있게 대본 안보고 하거나 둘 중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Q:면접관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면바면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1차면접은 두분 다 실무진 파트장급으로 총 두 명, 2차면접은 두 분이 실무진 팀장 급, 한 분이 인사팀 과장급으로 총 세 명이었습니다.

Q:PPT발표 시간은 10분 꼭 지켜야 하나요?

면바면입니다. 10분 지나도 허용하는 사람도 있고, 10분 지나면 컷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8분 한다고 해도 마이너스 요소도 아닙니다. 위에 말했듯, 1차 pt면접의 핵심은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느냐’입니다. 저는 평소에 10분에 맞춰 연습했고 면접때도 9분 40초정도 했을겁니다.

Q:꼬리질문 많이 하나요? 전공질문도 많이 하나요? 직무면접에서도 인성질문 많이 한다는데 진짜가요? 직무질문, 인성질문 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압박질문 하나요? 자소서 질문 많이 하시나요? ppt에서 질문 많이 하시나요? 답변은 몇초 해야하죠?

답은 없습니다. 소개팅 나가기 전에 나가서 무슨 말 해야할지, 무슨 답변 해야할지 고민하는사람들은 아마추어고, 편하게 상대방에게 맞춰 분위기 리드하는 사람은 고수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한적으로 어떤 요소를 고민하고 준비하기보다는, 면접 자체가 가지는 의미를 먼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진실성 있는 지원자를 찾는 거죠. 게다가 면접관마다 성향은 다 상이합니다. 어떤 답변이나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기 보다, 자신의 마음속에 정립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준비하는게 훨씬 좋을겁니다. 그게 정해져있지 않은 답변과 면접관들에게도 항상 잘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생각을 정립한다는건 마인드세팅이죠. 특정 질문과 답변단위로 생각하는게아니라, 큰 범주에서 어떤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깊이 고민해보는겁니다. 그러면 그 주제안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와도 소신있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답하는 방법같은 경우는 가령, 어떤 답변에 대해 부정을 하더라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단호하게 주장하는 지원자를 꺼려하는 면접관도 있을거고, 강단있는 지원자로 보아 좋게 삼을 면접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성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유부단 하지도 않으면서도 소신있는 지원자가 되기위한 답변을 준비해야겠죠.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의 ~~한

면이 좀 더 와닿았기 때문에 주절주절.."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두 성향의 면접관을 다 흡수할 답변이 아닐까요?

Q:면접때 합불 시그널 뭐가있ㄴ
아무도 모릅니다

Q:1차 pt발표에 자기소개를 넣나요?

자유입니다. 위에 말씀 드렸듯, 10분 내외의 pt발표로 면접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시고 그것을 위한 빌드업에 자기소개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든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필수 포함 사항 빼고.

Q:1차 면접 pt에 어떤거 넣어야 하죠?

원가를 보여주고 발표했을 때, 자신이 그 회사의 그 직무에 왜 필요한지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5.문제 발생 관련 질문

Q:서류상에 학점 표기를 잘못 했는데 수정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떡하나요?

인사팀 측에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ASAP로 조치하시면 좋습니다.

-이미 서류 합격까지 한 상태라 너무 불안합니다. 어떡하나요?

인사팀 측에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ASAP로 조치하시면 좋습니다. 학점의 숫자가 바뀐다고 탈락시킬 만큼 학점을 최고 장점으로 보고 뽑으신 거면 위험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사팀이나 면접 담당자측 판단에 맡기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미리 '서류 등에 기재하거나 증명한 항목들이 거짓임을 알게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리 명시해놨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에 대해 감안 하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6.기타 질문

Q:플운, 플기, 생기, 생관이 뭐죠?

플랜트운영, 플랜트기술, 생산기술, 생산관리의 줄임말입니다. 완성차 직무 대분류입니다.

Q:현대하면 또 삼성이죠 ㅎㅎ 삼성에 대한 궁금증도 많은데 어디다 물어보면 될까요?

여기다 하지 마세요.

물어보면 될까요?

여기다 하지 마세요.